솔루션들과 마스터 솔루션

(사사기 18:14~20)

14.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15. 다섯 사람이 그 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16. 단 자손 육백 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17.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육백 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18.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19.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20.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솔루션들과 마스터 솔루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솔루션들과 마스터 솔루션'
'솔루션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이지만 '마스터 솔루션'은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거나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의 해법이 솔루션입니다. 인터넷 사업 쪽에서 솔루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으며, 그 외에도 건강관리 솔루션, 모발관리 솔루션, 직장인의 직무 솔루션, 온라인 쇼핑몰 제작의 솔루션도 있고 저희가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도 솔루션은 필요 합니다. 이러한 삶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솔루션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옛날에 약장수들이 팔던 사이비 만병통치약이 아닌 다음에는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한 마스터 솔루션은 없어 보이므로 '마스터'라는 단어가 오히려 이 말을 더 비현실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돈 문제를 겪고, 자녀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회사에서 어려운 과제를 떠맡게 되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 같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목회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 각각의 솔루션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많은 솔루션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단 하나의 마스터 솔루션이 있고 그것만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각기 다른 문제들에 적용되는 다른 솔루션들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궁극적인 마스터 솔루션 한 가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결코 문제없는 시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죄에 빠져서 멸망할 처지로부터 솔루션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솔루션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과 구원의 솔루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죄 사함과 구원을 종교적인 영역의 일로만 생각해서 십자가를 종교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등 모든 삶의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진정한 마스터 솔루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지 않는 모든 솔루션은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제시한 것일지라도, 임시방편일 뿐이고 가짜이고 많은 경우에 사기일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추적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미가의 집에 가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생계를 찾아 떠돌던 사람을 미가가 취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단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 땅을 정탐하러 가던 중에 미가의 집에서 가짜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5~6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라고 합니다. 상황 전개는 정탐꾼의 길이 이 레위인의 말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발견하게 된 라이스 땅은 삶의 조건을 위해 부족함이 없고, 외침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었고 그곳의 주민들은 아주 약했기 때문에 육백 명만 무장시켜도 정복할만한 곳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탐꾼들이 부탁한 신탁에 대해 가짜 제사장 레위인이 말해준 대로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정탐한 사람들이 단 지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육백 명이 무장하고 가는 길에 다시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이미 정탐꾼들의 경험상으로는 이 집의 제사장이 아주 영험한 자였기 때문에,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 신상을 강제로 훔치고 가짜 제사장 레위 청년을 스카우트 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가 쫓아와서 훔쳐가는 자들에게 따지자 무장한 단 지파의 사람들이 미가를 협박하여 포기하게 만듭니다. 레

위인 청년은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을 하기 보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좋게 여겨져서 그들의 제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가의 개인 신당에서 가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레위인 청년은 사실 한 일이 없습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인 청년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적도 없고 계획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주었을 뿐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에게 물어서 답을 달라고 하고는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듣고 싶어 하던 말이 있었던 것이고 레위인 청년은 그것을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들이 정복할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 사람들은 가짜 제사장을 능력 있다고 보아서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모든 점쟁이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사업이 잘되고 복이 넝쿨채로 들어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주면 돈이 안 생기므로 먼저 액운이 끼었다는 말을 합니다. 벌벌 떨면서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굿을 하고 부적을 사야하고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미가가 레위인 청년을 자기 돈을 들여서 제사장으로 개인 신당에 취직시킨 이유도 똑같습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였고, 단 지파가 이 사람을 스카우트한 이유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무지몽매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지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단절되어 있고, 미가와 단 지파 사람들도 이 가짜 제사장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미가나 단 지파 사람들은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짜 제사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이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문제점은 사람이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다른 대상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마음의 첫 번째 것으로 붙잡고서 추구하는데 자꾸 방해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내 능력 또한 내 소원을 성취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장애를 넘어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솔루션을 듣고 싶어 하는데, 선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추구해가기 위한 솔루션을 가짜 제사장이 제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이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히4: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돈이나 자녀를 붙잡고 있으면 그 첫 번째로 좋아하는 자리에 붙들고 있는 것들은 우리 마음의 살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단 지파는 자기들이 살 땅과 그 땅에서의 번영이 살이 되어 붙은 것이고, 미가는 돈이 마음의 살이 되어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레위인은 이들의 마음이 돈과 번영과 풍요와 다산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신탁이라며 들려줍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죄가 마음의 살이 된 상태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가 미가와 그 어머니처럼 돈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 돈이 내 마음의 살이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살이 붙어있는 곳을 찾아서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의 칼을 가지고 찢어내는 것입니다.

나를 좀 부드럽게 감싸 주는 오리털잠바 같고, 나를 덮어주는 오리털이불 같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필 칼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다 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첫 번째로 사랑할 때에 자녀는 내 마음의 살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마음에서 살을 찢어냅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 상처가 나지만 그 자리에 약처럼 붙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십자가를 포함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에게서 마음의 살처럼 붙어버린 것들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빠진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유일한 마스터 솔루션인 십자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은 암입니다.

사업 문제로 상담하는 장로님께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이 잘될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사업에 마음이 매여 있기 때문에 사업으로부터 장로님의 마음을 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보다 먼저 붙잡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마스터 솔루션인 이유는 이렇게 십자가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베어낼 때에 떨어져 나간 세상 것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 말씀의 칼로 잘라내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소원하던 사업과는 정반대의 방향으

로 나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는 사업과 상관없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이지,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 가졌던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스터 솔루션인 이유는 온갖 문제 때문에 한없이 우울하게 가라앉던 내 마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절대 평강과 절대 기쁨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것들과 살이 되도록 붙어서 사랑하고 좋아하게 된 것이 암입니다. 우리 삶에서 기쁨과 감사를 갉아먹고 우울을 키우는 암 덩어리입니다. 베어내기만 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뜻의 소재들이 되지만 내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암이 됩니다.

레위인이 스카우트 된 이유는 듣고 싶은 말들을 들려주었기 때문이고, 한 마디로 솔루션을 제공해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레위인이 떠돌아다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일조를 아무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앙 성소에서 제사장을 도우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에서의 제사가 없어졌고 상번제의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상번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내가 죽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먼 곳에 살더라도 중앙 성소에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좋아하는 내가 죽는다는 의미였던 것인데,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십일조도 드리지 않게 되자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며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솔루션은 노벨경제학상을 열 번 받은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돈 문제와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돈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솔루션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어도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병원을 가더라도 내 마음이 건강에 대해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 해결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자녀에 대해서 죽으세요. 그럴 때에 자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될 것이고 나도 항상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자녀와 관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터 솔루션이 아닌 모든 솔루션들은 다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셔도 받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어찌하면 좋겠는지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